

음주운전은 차도 뺏는다...경찰 '특별수사' 한달새 29대 압수

경찰·검찰 협업해 영장·임의제출 압수 “음주운전 뺏 차량도 압수 인식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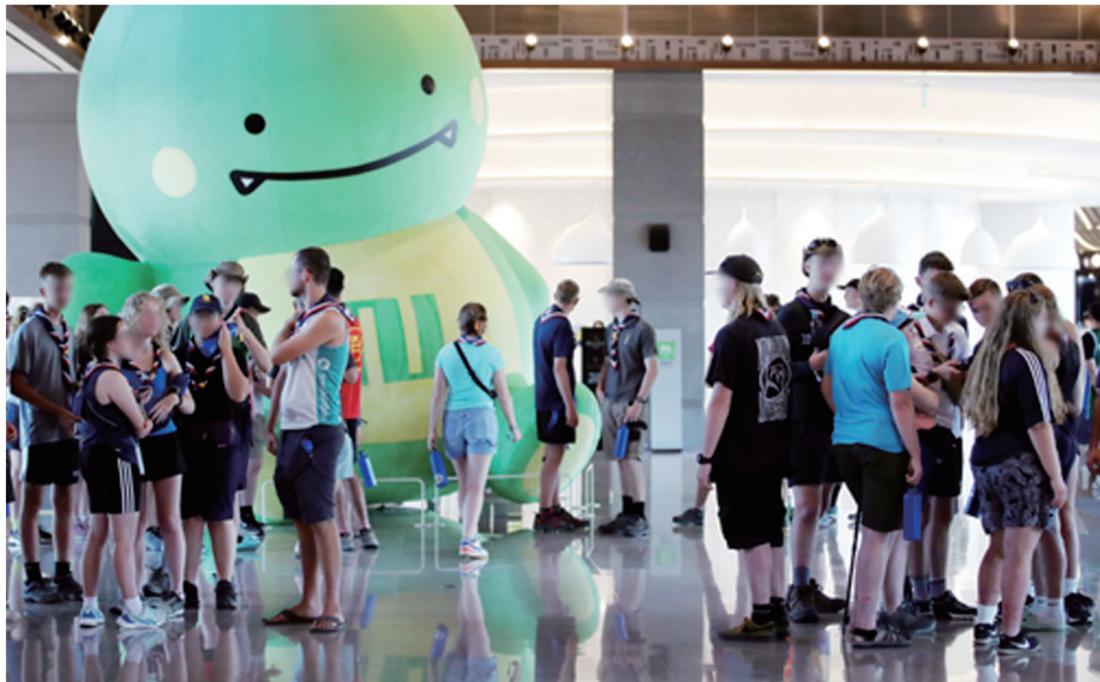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수사기간' 운영 첫 한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29대를 압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합동으로 상습 음주운전 재범 근

절에 나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4개월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음주운전사범 소유 차량에 대해 영장에 의한 압수로 5대, 임의제출

24대 등 총 29대를 압수했다. 우선 지난달 4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A(25)씨의 SUV 차량을 경기 오산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압수했다. 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피의차량을 영장을 통해 압수했다. 차량이 압수된 음주운전 사범을 세부적으로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가 24명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이중 만취 상태(0.2%) 이상 음주운전 피의자도 11명(37.9%)에 달했다. 경찰은 특히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17명(58.6%), 사망·도주 등 큰 피해를 낸 초범 7명(24.1%)의 차량도 적극 압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 운전자를 바꿔치기 사범 16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오유나기자**



호텔 로비에 모인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조기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6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 일상회복 이번 주 분수령 재유행 뚫고 연착륙 가능할까

당국, 7일 감염병 자문위·9일 중수본 회의

방역 당국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던 코로나19 2단계 일상회복 시점과 연착륙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면역이 약화되고 여름철 재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재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는 시점에 2단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회의, 오는 9일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통해 추가 방역 완화 조치와 시점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까지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6월말부터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첫 주부터는 전주대비 20% 이상 늘어나며 확산세가 커졌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7월1주 2만1856명→7월2주 2만6705명→7월3주 3만6258명→7월4주 4만484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하루 5만7220명이 확진돼 올해 초 겨울철 대유행 때와 비슷한 확진자 규모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사망자 규모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약 6만 명, 최대 7만6000명까지 발

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상회복 시점은 여름철 재유행 정점이 지난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등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이뤄지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던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는 국가의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상당 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 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진찰료만 5000원을 내면 됐지만 일상회복 후에는 약 4만~5만원의 부담하게 된다. 의료계는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가 지원을 일시에 중단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3일 질병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이동량이 증가하면 겨울 대유행이 예측되는 만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수가지원체계가 개편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진단검사와 치료가 소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마약 의심 신고 받아 클럽서 불법체류자 11명 적발

경찰이 마약 행위가 의심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적발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 11명을 적발해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광산구 하남동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행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비자가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신분을 숨기고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클럽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따라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임형택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운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